



만로랜드, 아시아 매니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 전담 매니저 배정...11월 혁신적인 인쇄기 선보일 것

만로랜드코리아(주)(대표이사 안형준)는 지난 9월 3일 만로랜드코리아 회의실에서 한중일 지역담당 매니저 에두어드 라코우스키, 아시아지역 영업 담당 매니저 헤이케 웨버 초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만로랜드는 본사 서비스 조직 개편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오는 11월 5일에는 혁신적인 인쇄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본사 요청사항 전담매니저 통해 바로 해결

만로랜드는 최근 본사 서비스 조직을 개편했다. 개편을 통해 각 지역 전담 매니저 1명과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2명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에두어드 라코우스키 매니저는 “기존에 한국의 고객들이 본사에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복잡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한중일 3개국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본사에 있는 서비스 지역전담 매니저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라며 “한국 전담 매니저를 맡게 됐는데, 앞으로 만로랜드 본사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달라. 어떤 문제든 바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액티브 서비스 통해 인쇄기 최상의 상태로 유지

과거 ‘리액티브 서비스’는 인쇄기가 고장나면 서비스 담당자를 불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프로액티브 서비스’는 기계가 고장나기전 수시

로 관리해 기계의 성능이 좋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쇄기계는 도입 후 2~3년 정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서서히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로랜드에서는 ‘프로액티브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기기를 점검함으로써 수리비용, 다운타임 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에두어드 라코우스키 매니저는 “인쇄는 기술, 조직, 사람이 각각 100%가 돼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각 파트가 조금만 부족해도 인쇄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로랜드는 인쇄기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만로랜드는 오는 11월 5일 큰 인기를 모은 700 하이프 린트보다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혁신적인 인쇄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